

Science Communication & Leadership(Bis 422/810)

Department of Bio & Brain Engineering

Fall 2009: Syllabus for the first 8 weeks

Hoh Kim(hohkim@kaist.ac.kr; www.hohkim.com)

Course Context

"나는 내 공부/연구(혹은 할 일)만 신경 쓰면 돼."

혹시 은연 중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본 수업은 이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도로서(혹은 다른 자격으로서도) 성공이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집중하는 일 외에 또 중요한 절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이(間; between)'에 대한 고민과 기술입니다.

최근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 받았던 때를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연구이건 사업이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사이')에서 옵니다. 일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차라리 긍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하면서 겪는 스트레스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일과 연관된 사람과 나와 사이(間)에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의미를 각자 어떻게 규정하든 사람은 '행복한 성공'을 꿈꿉니다. 성공한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행복하다고 성공한 것도 아니지만, 행복한 성공은 바로 '사이(間)'에 대한 진지한 노력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이란 여러분이 매일 연구실과 교실에서 공부하는 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행위이고, 이는 결국 '사이'의 기술을 습득하는 것입니다. 리더십이란 여러분의 지위와 상관없이 발휘하는 것으로(leadership at all levels), 다른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것이며 이 역시 '사이'의 기술을 기반으로 합니다.

1962년 DNA 이중나선 구조 발견으로 프랜시스 크릭, 모리스 윌킨스와 함께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제임스 듀이 왓슨(James Dewey Watson)은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Avoid Boring People)"에서 과학을 '극도로 사교적인 행위'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적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사실과 생각으로만 이루어진 영역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고도 그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일단 과학에 투신하면 두 세계가 충돌한다. 재미만이 아니라 직업적 성공을 위해서라도 동료들의 성격적 기벽을 실험내용만큼 잘 알 필요가 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수다는 일상이다. 집단에 속하여 새 소식을 전해 듣지 못한다면 한 손을 등 뒤로 묶고 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스타트렉의 물리학이란 책을 지은 로렌스 크라우스(Lawrence Krauss)는 MIT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I remember, I was on a visiting committee at MIT, and these students tend to think they're going to be successful because they're good at what they're doing. But in fact, a large barometer of their success will be how well they can communicate what they're doing. Not just to the outside public, which most scientists don't necessarily have to do – though I think that's important, too – but within the field, or to your company. It isn't just what you do, it's often how you present it."

(Lawrence Krauss, Author, Physics of Star Trek, SEED Nov./Dec. 2007)

Course Focus

본 수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한 기술로서 커뮤니케이션과 리더십을 다루게 됩니다. '사이'에 대한 기술은 결국 국 정치(politics)에 대한 것입니다. '난 정치 따위엔 관심이 없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피한 우리 국회의 모습에 염증을 내는 말이라면 동감입니다. 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로서 정치에 관심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인간이라는 한자(人間)가 말해주듯 사람은 '사이'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영어의 person이라는 단어는 연극에서의 가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지요. 가면이란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쓰는 것입니다. 즉 어느 누구도 사람 사이의 정치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본 수업의 초점은 우리가 긍정적인 정치력(positive political power)을 갖기 위해 알아야 할 것입니다. 8주에 걸쳐 다음과 같은 큰 세 가지 주제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INFLUENCE – 우리는 영향력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중 영향력과 설득 분야에서 가장 인 용이 많이 되는 사람은 아리조나 주립대학의 로버트 치알디니(Robert Cialdini) 교수입니다. 그의 밀리언셀러 (million seller)인 <Influence>는 우리나라에서도 <설득의 심리학>이란 제목으로 번역되어 국내에서만 1백 만부 넘게 팔렸습니다. 이 책은 심리학에서 나온 60여 년 동안의 심리학 연구 결과를 종합 분석해서 나온, 모두 여섯 가지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섯 가지 원칙을 모두 살펴보게 되고 토론하게 될 것입니다.

#2. LISTENING – 커뮤니케이션에는 네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이 네 가지 분야에서 듣기는 가장 어려운 기술이면서 가장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듣기의 기술이란 단순히 남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기술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학기 동안에는 의사 블로거, 광고회사의 Executive Creative Director, 신문기자, 경찰,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 등을 초청하여 질문하고 듣는 연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3. DISCLOSURE – 마지막으로 우리는 bad news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노출(self-disclosure)하는 스토리텔링의 형태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잘못을 노출하는 사과(apology)의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Course Materials

Required

- ✖ 로버트 치알디니, 설득의 심리학
- ✖ 로버트 치알디니, 노아 골드스타인, 스티브 마틴, 설득의 심리학 2

Recommended

- ✖ 제임스 듀이 왓슨,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
- ✖ 캐서린 리어돈, 성공한 사람들의 정치력 101
- ✖ 최인철, 프레임
- ✖ Dorothy Leeds, The seven powers of questions: secrets to successful communication in life and at work

Course Requirement and Evaluation

- ✖ Mid-term exam(40%)
- ✖ Q-S*(40%)
- ✖ Others(20%)

*이에 대해서는 수업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Course Schedule

Date	Agenda	Assignment
9/1(화)	강사의 해외 일정으로 첫날은 본 syllabus로 대신합니다	
9/3(목)	Listening and Disclosure: Visual storytelling and self-disclosure	
9/8(화)	Influence: Contrast	
9/10(목)	강사의 워크샵 참여로 휴강(보강 예정일 10/20)	
9/15(화)	Listening 1: Health 2.0-양광모 주식회사 헬스로그(www.healthlog.kr) 대표 헬스로그의 양광모 대표는 30대의 젊은 의사(비뇨기과 전문의)입니다. 그는 공중 보건으로 재직하던 시절인 2007년 말 의사들이 자신들의 전문 분야인 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블로그를 오픈하였고, 2008년 한 해에만 4백 4십만 명의 방문자를 끌어들이며, 우리나라에서 헬스 분야의 가장 성공한 소셜 미디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공중보건의 생활을 마친 2009년, 그는 병원으로 가지 않고 헬스 커뮤니케이션 2.0을 실천하기 위해 과감하게 도전, 주식회사 헬스로그를 시작했습니다.	QS 1
9/17(목)	Influence – Reciprocity	
9/22(화)	Listening 2: 전해자-前 광고대행사 Silver Bullet Executive Creative Director(상무) 전해자님은 사람과 그 사람이 쓰는 글과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국어국문학(경희대 학사)을 전공하고 언어사회학(서강대 석사)을 전공하게 된 것도 그와 무관치 않을 듯 합니다. 2년 휴학을 포함 6년 대학생 신분으로 살다가 졸업 후, 학보사 기사를	QS 2

	<p>했던 경력으로 리포터 겸 카피라이터 일에 잠시 연루된 것이 20년 전입니다. 금강기획, 그레이프 등의 광고회사를 거쳐 Silver Bullet(GS그룹 계열)까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주로 사람 만나고 요리하고 여행가고 사진 찍길 즐겨 합니다. 그로부터 Creativity에 얽힌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p>	
9/24(목)	Influence - Liking	
9/29(화)	<p>Listening 3: Life of Journalist/Policeman-정혁수 경향신문 대전지국기자/ 김홍태 대전지방경찰청 여성, 학원폭력 예방 담당 계장</p> <p>정혁수 기자는 대학(충남대 철학과)을 졸업하고 기자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대전일보, 머니투데이를 거쳐 현재는 경향신문에서 고참기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김홍태 계장은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대전지방경찰청에서 여성과 학원폭력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사고가 난 후 범인을 잡는 치안보다는 예방 차원의 치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문제점을 다루는 기자와 경찰의 삶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p>	QS 3
10/1(목)	Influence – Authority & Consensus	
10/6(화)	<p>Listening 4: Avoiding Boring People-허주현 오길비 헬스 차장</p> <p>허주현 차장은 대학(서강대)에서 국문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서강대 영상 대학원)에서는 PR을 전공하였습니다. 독립 PR회사로는 세계 최대인 에델만에서 커리어를 시작하여, 현재는 글로벌 회사로서는 국내 최초의 헬스 전문 PR firm인 오길비 헬스(www.ogilvyhealth.kr)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허주현 차장은 제임스 듀이 왓슨의 <지루한 사람과 어울리지 마라>를 통해 여러분에게 공학도로서 얻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과 관계에 대한 인사이트를 나눌 것입니다.</p>	QS 4
10/8(목)	Influence – Scarcity & Consistency	
10/13(화)	Disclosure – Apology	
10/15(화)	Disclosure - Bad News Communication	
10/20(화)	Workshop	보강
10/22(목)	중간고사	

###